

사상체질별 성격 및 소증(素證) 특성 -사상체질 진단 도구(SCAT)와 민간전문가에 의해 공통 체질로 판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김순미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ersonality Traits and the Pathophysi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Focused on Subjects Determined as the Same Constitutions by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SCAT) and Private Experts-

Soon Mi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Gach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의학 분야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전문가에 의한 공통적인 사상체질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의학 분야에서 개발한 사상체질진단도구(SCAT)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상체질 전문가에 의한 체질 판정 후 양쪽의 결과가 일치한 117명이었으며 SCAT 설문지의 성격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체질별 성격특성으로 태음인과 소양인은 대담하고 매사에 능동적이며 외향적이며 남성적이었고, 소음인은 섬세하고 매사에 수동적이며 내향적이며 여성적이었다. 또한, 태음인과 소음인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꼼꼼하지만, 소양인은 속내를 잘 드러내고 털어내는 경향이 있었다. 체질별 병태생리학적 특성으로 태음인은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되며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싫어하지만, 소음인은 식욕이 없는 편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땀을 잘 흘리지 않고 추위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양인은 그런 특성이 중간 정도였으며, 소음인보다는 태음인에 가까웠다. SCAT 설문지 총 35개 문항 중 13개 문항에서 체질별 유의적 차이가 보였지만, 태음인은 소양인과 비슷한 성향이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 사상체질 전문가가 시행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므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상체질 설문지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sang Constitution as determined by analysis tools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and private experts who did not major in oriental medicine. The subjects enrolled were 117 people whose constitutions were determined by the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SCAT) developed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and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who did not major in oriental medicine. Consistent results were obtained in both groups. We further evaluated the personality and pat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CAT questionnaire. Regard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y constitution, Taeumin and Soyangin were bold, active, extroverted, and masculine, whereas Soeumin were delicate, passive, introverted, and feminine. Furthermore, while Taeumin and Soeumin were meticulous without revealing their inner feelings, Soyangin tended to reveal their inner feelings well and were careless. Pat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by constitution revealed that Taeumin had a good appetite, digested well, sweated a lot, and disliked the heat, whereas Soeumin had no appetite, had poor digestion, did not sweat well, and disliked the cold. Soyangin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intermediate and were closer to Taeumin than Soeumin.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by constitution were observed in 13 out of 35 questions in the SCAT questionnaire, several Taeumin tendencies were similar to Soyangi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a study conducted by private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who had not majored in oriental medicine, thus demonstrating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a more objective Sasang constitutional questionnaire through multidisciplinary research.

Keywords : SCAT, Private Expert, Questionnaire, Personality, Behavior Pattern, Pat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 Soon Mi Kim(Gachon Univ.)

email: soonmik@gachon.ac.kr

Received July 28,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Revised August 1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19세기 말 조선의 의사인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는 인간의 타고난 체질을 형태학적 특징, 생리, 병증 등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과 소음인의 4 체질로 분류하는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창시하였다[1]. 사상의학은 각 체질에 따라 장기의 강약 및 외형, 성격, 질병에 걸렸을 때의 증상과 증후 등의 특징이 다르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교류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적, 정신적 건강까지를 서술하고 있는 이론이다[2]. 이러한 사상의학은 한국인에게 이미 깊게 스며든 개념으로 Lee[3]는 많은 한국인은 개인의 체질 판정이 결론 나지 않았을지라도 사상론에 맞춰서 음식과 한약재를 선택하고 있고 특히 건강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으며, 839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90%가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상의학은 심리 경향을 파악하여 성격 유형만을 구분해 주는 서양의 MBTI[4]나 인도의 자연 의학에서 발전하여 세계적인 산업화에 성공한 아유르베다[5,6] 등과 달리 국내에서조차 비과학의 분야로 인식되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크에도 불구하고 활용 범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상체질 판정 도구의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의 사상체질 진단은 우선 체질 진단지 등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체질 약을 처방한 후 환자의 주 증상의 호전 여부로 최종 체질을 진단한다[7]. 하지만 이는 병증이 나타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의 진단 방법이며, 한의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다. 또한, 치료가 아닌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도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안면, 음성, 체형, 설문 4개 영역으로 사상체질을 분석하는 도구인 SCAT(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ver.2.0, 현재는 K-PRISM으로 명칭 변경)를 개발하여[8] 사상체질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상체질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인의 체형과 안면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체질별 아로

마오일 등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O-ring test와 펜들럼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체질을 판정한다[9].

그러나 한의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설문지, 진단 도구 등을 이용한 방법은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이나 여전히 재현성의 문제[10-12]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사상체질 진단검사들은 한의학을 전공한 임상 의사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며, 그 기준은 19세기 말 이제마에 의해 저술된 사상체질 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 원문의 체질 구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이론적 기반이 되는 구체적 관찰과 수량적 측정을 위한 객관적 절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13,14]. 또한, 임상 한의사는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미 병증을 나타낸 환자 위주의 대상자를 진단하는 반면 민간전문가는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의 대상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치가 많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 또한 재현성 문제가 있으며 판정 기준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전보[9,14,15]에서는 이 두 방법에 의해 측정된 체질 특성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판정 일치율은 체질에 따라 달라서 소음인에게서 가장 높았지만, 소양인의 일치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SCAT의 4가지 측정 영역 중 설문 영역에서의 일치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인에 대하여 SCAT와 함께 민간 분야의 사상체질전문가가 사상체질을 판정하고 이들의 결과가 일치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체질별 성격과 소증(素證) 특성을 분석하여 체질 특이적인(specific) 심리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의학 외 타 분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상체질 설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상체질의 활용 분야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로 보고 건강과 장수는 이들의 조화로운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음양오행론에 근거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16]. 그러나 이제마에 의해 체계화된 사상의학은 기존의 전통 한의학이 개인의 외형적 유사성에 따라 체형, 기질, 증상 및 병리를 패턴으로 분류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달리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인간의 상호작용과 이로 부터 발생하는 슬픔, 분노, 기쁨, 즐거움(희노애락)의 붕

괴로 보고 체질에 따른 차별화된 처방을 해야 한다는 체질론에 기초하고 있다[17]. 한국인에게 있어서 사상체질은 실생활에 매우 친숙한 분야로 많은 한국인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질에 따른 음식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3], 기존의 한의학과 식생활 이외에도 사상체질에 따른 미디어 이용 행태[18],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분석[19-21], 사상체질별 휴대폰 재질 촉감도[22] 및 스마트밴드 소재와 재질 촉감 선호 경향[23], 사상체질과 전공에 따른 학습 스타일의 차이 및 뇌의 우세성[24], 사상체질과 인성교육 프로그램[25], 사상체질과 의복 가치관[26], 사상체질과 헤어스타일 및 헤어 컬러[27,28], 사상체질과 아로마 에센셜오일[29], 체질별 피부미용교육[30], 사상체질의학을 적용한 간호 연구[31], 사상체질에 따른 와인 추천 앱 개발[32] 등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만큼 개인별 맞춤 산업 시대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학문이라 할 수 있다.

2.2 사상체질의 진단 방법

사상체질 이론은 한의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왔으며,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에서는 체질 진단지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질을 1차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체질 약을 복용하도록 한 후 환자의 주요 증상이 호전되는 지로 최종 체질을 진단한다[7]. 따라서 사상체질의 임상적 활용을 위하여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QSCC2),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 축소화 환자용 사상체질설문지(SSCQ-P), 사상체질진단틀(SCAT) 등 다양한 진단검사 도구들이 개발되어왔다. 이들 도구 중 SCAT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8]한 것으로 안면, 음성, 체형, 설문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를 입력하면 사상체질을 각각의 영역에서의 체질과 이를 통합한 체질로 구분하여 판정한다[9]. 그러나 이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면 촬영과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일정한 환경과 도구가 필요하며 체형 측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조건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판정 방법은 설문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보[9]에서 SCAT의 4영역 중 일치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설문, 체형, 안면, 음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도와 재현성이 높은 설문지 개발은 사상체질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상체질을 판정하는 설문지의 신뢰도에 대해

서 Han & Kwon[13]은 사상체질 판정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진단 항목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수의 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체질 결과일수록 진단의 타당도가 올라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사상체질 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Hwang 등[10]은 QSCC II 설문지를 사용하여 2년에 걸쳐 연속으로 검진센터에 방문한 58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56.88%의 재현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Bae 등[11]은 단축형 사상체질 진단 설문지(KS-15)를 이용하여 149명의 대학생에게 1년의 간격을 두고 두 번 설문을 시행한 결과 신체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질 진단 일치율은 75.8%의 수준이었으며, Lee 등[12]은 176명의 대학생에게 4주의 간격을 두고 SCAT의 설문지를 두 번에 걸쳐 test-retest 신뢰도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일부 문항이 낮은 상관 계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11,12]는 기존 설문지의 재현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할 수준의 일치율이라 평가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불일치율로 인하여 사상체질 판정의 재현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Jo[33]는 사상체질이 유전되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며 일생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것은 “체질”이 아니라 “체질 병증”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식의 사상체질은 한쪽 부모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양쪽 부모의 다양한 외형 기질 및 성격과 함께 특이한 생리적, 병리적 현상을 닮는다고 하며, 서로 다른 사상체질을 갖는 부모의 자식은 부모 중 한쪽의 체질을 물려받지만, 부모가 가진 잠복 형질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태음인의 성향이 있는 소음인과 태양인의 성향이 있는 소양인일 경우 자손은 태음인이 성향이 있는 소음인과 태양인의 성향이 있는 소음인 또한 태양인의 성향이 있는 소양인과 태음인의 성향이 있는 소양인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체질 판정 결과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판정이 되지만 같은 체질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외의 잠복한 체질의 성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혼재된 체질 특성에 의해 체질 판정의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사상체질 진단에서의 소증(素證)

Li 등[34]은 소증은 문헌상 素病, 素症, 素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소증(素證)은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써 환자가 발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개별 증상 전부를 이르는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협의의

소증은 완실무병(完實無病) 상태에서 체질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생리적인 증(證)의 묶음으로 현재의 병이 발병하기 전까지의 체질의 본질을 나타내는 생리 증상과 병리 증상을 말하며, 사상의학에서 소증은 땀, 대변, 소변, 수면 및 소화 상태 등을 근거로 체질을 진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35]. 즉 ‘폐비간신(肺脾肝腎)’이라는 장기의 기능에 의해 분류되는 사상체질에 있어서 간과 소장의 기운이 발달한 간대폐소(肝大肺小)의 태음인은 영양소를 대사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우수하며, 땀을 잘 내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고, 신대비소(腎大脾小)의 특징을 갖는 소음인은 내보내는 기운(出放之氣)이 쌓아두는 기운(納積之氣)보다 강하고, 속이 냉한 병증이 생기게 되므로 소화가 잘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 하였다. 또한, 소음인과 반대로 비대신소(脾大腎小)의 특징을 지닌 소양인은 쌓아두는 기운(納積之氣)이 내보내는 기운(出放之氣) 보다 강하므로 배변이 잘 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 하였다[35,36].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사상체질별 식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된 세 건의 연구 중 체질에 따른 성격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A 연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기도 내의 대학 내 부착된 포스터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B와 C 연구는 힐링산업협회가 주최한 2017년 및 2019 힐링 페어(Healing Fair)에서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인 20세 이상의 성인 각각 203명과 153명이었다. 총 446명 중 SCAT와 민간전문의의 사상체질 판정을 모두 시행한 참가자는 총 354명(79.4%)이었다. 이 중 두 방법에 따라 동일한 체질로 판정되고, SCAT 통합 체질 판정 결과 제1 체질과 제2 체질의 차이가 10% 이상인 참가자는 A, B, C 연구 각각 13명, 55명, 49명으로 총 117명이었다. 각 연구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A; 1044396-201605-HR-041-01, B; 1044396-201703-HR-048-01, C; 1044396-201903-HR-042-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3.2 사상체질 분석

SCAT는 안면 사진 촬영과 음성녹음, 체중, 키와 함께

신체의 각 둘레를 측정하는 체형 결과와 성격 및 소증(素證)을 살펴보는 설문지 등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영역별 체질 구성비(%)와 함께 이들 결과를 통합한 통합체질 구성비(%)를 나타내준다[35]. 예를 들어 대상자의 통합체질 결과는 태음 특성 18.8%, 소음 특성 19.5%, 소양 특성 61.5%, 태양 특성 0.2%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경우 대상자는 가장 비율이 높은 소양인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보[9]를 통해 SCAT의 4개 영역 중 SCAT와 민간전문의의 일치되는 영역은 설문과 체형이 가장 높았으므로 두 개의 영역만을 측정하여 체질을 판정하였다.

민간 분야의 사상체질전문가는 체질 분석을 위하여 O-ring test와 펜듈럼(pendulum)을 사용하였다. O-ring test에는 체질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체질별 아로마오일(태양인: 파인, 소양인: 자몽, 태음인: 페퍼민트, 소음인: 로즈마리)과 자체 제작한 색 카드(태양인: 녹색, 소양인: 파랑, 태음인: 노랑, 소음인: 주황)를 사용하였다. 아로마오일은 A와 B 연구에서는 바이오엔바이오사(부천, Korea), C 연구에서는 도테라(도테라코리아, 서울) 제품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AT의 판정 결과와 전문가의 판정 결과가 일치하는 대상자만을 분석하였으며, 각 체질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SCAT의 통합체질 구성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체질과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체질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는 총 117명이었다. SCAT와 전문가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태양인은 없었으므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3 체질만을 비교하였으며, 대상자 117명 중 남자는 29명으로 여자 88명에 비해 적었으므로 남녀 간 비교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3.3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SCAT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성격과 소증(素證)을 묻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 설문지는 12문항으로 각각의 특성은 3점 척도로 되어 있다. 소증 설문지는 23개 문항으로 식사 관련 2문항, 소화 관련 5문항, 땀 분비 관련 4문항, 대변 관련 2문항, 수면 관련 1문항, 한열(寒熱) 관련 4문항, 마시는 물과 관련한 음수(飲水) 관련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항목 중 감기 걸렸을 때의 증상,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 기타사항으로 평소 자주 생기는 증상을 묻는 다중 응답 문항 3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문항에 따라 3점, 4점 또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0.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간의 성격특성과 소증 문항 중 연속형 문항에서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 test로 검정하였다. 또한, 범주형 문항은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대상자의 일반사항

사상체질 분석대상자는 총 117명이며 남자 29명, 여자 88명으로 각각 24.8%와 75.2%이었다. 연령대는 50~60세가 남녀 각각 17명(58.7%), 38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49세가 6명(20.7%), 25명(28.4%)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 및 BMI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n	Women	Total	
Age (years)	20-29	3 (10.3) ¹⁾	18 (20.4)	21 (18.0)
	30-49	6 (20.7)	25 (28.4)	31 (26.5)
	50-69	17 (58.7)	38 (43.2)	55 (47.0)
	≥ 70	3 (10.3)	7 (8.0)	10 (8.5)
	Total	29 (100.0)	88 (100.0)	117 (100.0)
Height(cm)	172.25±8.53	160.34±5.40	162.44±7.54	
Weight(kg)	71.33±11.75	54.71±7.61	57.65±10.53	
BMI	24.00±2.30	21.23±3.28	21.72±3.29	

1) n(%)

4.2 대상자의 사상체질 분포

A, B, C 연구 각각의 대상자는 각각 13명, 55명, 49명으로 총 117명이었고, 이 중 SCAT와 전문가의 체질 진단 결과가 일치하는 태음인은 없었다. 남자 대상자 29명 중 태음인은 18명(62.1%), 소양인은 1명(3.4%), 소음인 10명(34.5%)이었으며 여자 대상자 88명 중 태음인은 18명(20.4%), 소양인은 15명(17.1%), 소음인 55명(62.5%)이었다. 전체적으로 소음인이 65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소양인은 16명(13.7%)으로 가장 적게 분포하였다(Table 2). 전보[15]에서도 SCAT와 민간 사상체질전문가의 판정 일치율은 38.2%이었으며 이 중 소양인의 일치율은 2.8%로 매우 낮았으며, 1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대상자를 같은 방법으로 판정한 연구[12]에서조차도 소양인의 일치율은 태음인 45.6%, 소음인 34.9%에 비해 19.5%로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소양인의 일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사상체질 판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상체질 판정 기준이 『동의수세보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신동의학사전』에 따르면 사상체질은 ‘폐비간신(肺肥肝腎)’으로 분류되는 각 장기의 기능의 대소강약(大小強弱)에 의해 구분된다고 하는데 간과 소장의 기운이 발달한 태음인의 경우 영양소를 대사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우수하므로 큰 체형을 지니고, 비위 기능이 약한 소음인은 왜소한 체형을 갖는다고 하며, 비위 기능이 발달한 소양인은 체격은 보통이고 몸집은 여윈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36]. 그러나 사상의학이 창시된 19세기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로 비위 기능이 발달한 소양인이라 하더라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큰 체격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 기근 시대의 주된 구황 식품이 감자, 고구마와 같은 ‘음인’에게 적합한 식품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과 같이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Table 2.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of Subjects

	A	B		C		All		
	Women	Men	Women	Men	Women	Men	Women	Total
Taeumin	4 (30.8) ¹⁾	7 (58.3)	8 (18.6)	11 (64.7)	6 (18.8)	18 (62.1)	18 (20.4)	36 (30.8)
Soyangin	5 (38.4)	1 (8.4)	3 (7.0)	0 (0.0)	7 (21.9)	1 (3.4)	15 (17.1)	16 (13.7)
Soeumin	4 (30.8)	4 (33.3)	32 (74.4)	6 (35.3)	19 (59.3)	10 (34.5)	55 (62.5)	65 (55.5)
Total	13 (100.0)	12 (100.0)	43 (100.0)	17 (100.0)	32 (100.0)	29 (100.0)	88 (100.0)	117 (100.0)

1) n(%)

환경에서도 예전 소양인의 분류 기준을 같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의학계를 중심으로 다학제 차원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9,15].

4.3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특성

SCAT 설문지 중 성격 설문지의 12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12문항 중 사상체질별 특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문항은 6문항이었다. ‘성격이 대범한지 아니면 섬세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가장 섬세한 성격을 갖는다고 답하였으며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00). ‘매사에 적극적이지 또는 소극적이지’를 묻는 문항 역시 소음인이 가장 소극적이라고 답하였으며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00). ‘성격이 외향적이지 아니면 내성적이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소음인은 가장 내성적이라고 답했지만, 태음인과 소양인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

었다(p=0.000). 또한 ‘성격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음인이 가장 여성적이라고 답했지만, 태음인과 소양인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00). 그러나 ‘속 이야기를 잘 드러내는 편인지 아니면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편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위의 문항들과는 달리 태음인과 소음인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소양인은 잘 드러내는 편이라고 답하였다(p=0.002). 마찬가지로 ‘덜렁대는 편인지 꼼꼼한 편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태음인과 소음인은 꼼꼼한 편이라고 답했지만, 소양인은 덜렁대는 편이라고 답하였다(p=0.001).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태음인의 성격은 대범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남성적이나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꼼꼼한 특성을 가졌으며, 소양인은 대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태음인과 유사하나 속을 잘 드러내고 덜렁대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음인은 태음인과 소양인

Table 3. Personality and Behavior Patter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tems	Taeumin (n=36)	Soyangin (n=16)	Soeumin (n=65)	Average (n=117)	F (p)
Is your personality bold or sensitive? (bold ① /delicate ③) ¹⁾	2.00 ± 0.54 ^b	1.75 ± 0.45 ^b	2.46 ± 0.56 ^a	2.22 ± 0.54	15.591 (.000) ^{***}
Are your actions fast or slow? (fast ① /slow ③)	1.94 ± 0.72	1.31 ± 0.48	1.91 ± 0.82	1.84 ± 0.78	4.525 (.013) ^{**}
Are you active or passive in everything? (active ① /passive ③)	1.56 ± 0.70 ^b	1.25 ± 0.45 ^b	1.94 ± 0.70 ^a	1.96 ± 0.67	8.394 (.000) ^{***}
Do you tend to speak or express yourself directly or indirectly? (directly ① /indirectly ③)	1.89 ± 0.75	1.81 ± 0.75	2.14 ± 0.79	2.02 ± 0.78	1.867 (.159)
Are you an extrovert or an introvert? (extrovert ① /introvert ③)	1.94 ± 0.75 ^b	1.56 ± 0.73 ^b	2.35 ± 0.60 ^a	2.12 ± 0.66	10.837 (.000) ^{***}
Are you usually active or quiet? (active ① /quiet ③)	1.69 ± 0.71	1.56 ± 0.73	2.06 ± 0.73	1.88 ± 0.75	4.798 (.010) ^{**}
Do you tend to make decisions easily or difficult? (easily ①/ difficult ③)	1.86 ± 0.83	1.69 ± 0.60	2.25 ± 0.73	2.05 ± 0.78	5.260 (.007) ^{**}
Are you more masculine or more feminine? (masculine ① / feminine ③)	1.75 ± 0.65 ^b	1.81 ± 0.75 ^b	2.34 ± 0.62 ^a	2.10 ± 0.65	11.228 (.000) ^{***}
Are you the type to reveal your inner feelings or not? (reveal ① / not to reveal ③)	2.19 ± 0.71 ^a	1.63 ± 0.72 ^b	2.34 ± 0.71 ^a	2.20 ± 0.71	6.430 (.002) ^{**}
Do you tend to express your opinions well or not? (express well ①/ do not express ③)	1.78 ± 0.68	2.00 ± 2.73	2.14 ± 0.69	2.01 ± 1.18	1.088 (.340)
Do you get excited sometimes or do you handle things rationally? (excited sometimes ① / rational ③)	1.81 ± 0.75	1.81 ± 0.83	1.97 ± 0.73	1.90 ± 0.75	0.672 (.513)
Are you clumsy or meticulous? (clumsy ①/ meticulous ③)	2.14 ± 0.68 ^a	1.44 ± 0.73 ^b	2.17 ± 0.72 ^a	2.06 ± 0.71	7.152 (.001) ^{**}

* p<0.05, ** p<0.01, *** p<0.001

1) 1 point for 'bold', 3 points for 'delicate'

과는 달리 성격이 섬세하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여성적인 특성을 가졌으며 태음인과 마찬가지로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꼼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 사상체질전문가가 사상의학 관련 자료 및 전문가의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225개의 문항(동일한 속성에 대한 여러 유사 질문 항목을 포함하며,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묻는 133개의 문항과 92개의 성격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으로 구성된 사상체질 설문지 결과를 머신 러닝 기법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선택된 47개의 주요 측정 문항을 유사성 측정을 기반으로 6개의 군으로 클러스터링한 Kim 등[3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해당 연구에서도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병태생리학적, 심리적 특성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4.4 사상체질에 따른 소증 특성

SCAT의 소증 설문지 중 연속형 변수로 처리할 수 있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 8개 문항 중 사상체질별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던 항목은 2개 문항이었다. 즉, '평소 입맛이 어떤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입맛이 좋은 편이라고 답하였으며($p=0.001$), '평소에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태음인은 소음인보다 유의적으로 땀을 많이 흘린다고 답했으나 소양인은 중간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p=0.001$).

한편, 소증 설문지 중 범주형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소 하루 식사량'과 '소화 정도', '땀을 흘리고 난 뒤의 기분', '대변의 양상과 모양', '추위와 더위에 대한 기호', '손, 발 및 배의 한열(寒熱)', '평소 마시는 물의 양과 온도' 등을 묻는 문항 중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은 총 5개 문항이었다. 즉, '소화가 잘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화가 잘 된다'고 답한 비율(각각 55.6%, 50.0%)이 가장 높았으나 소음인은 '소화가 잘 안 되지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답한 비율(47.7%)이 가장 높았다. 또한 '땀을 흘리고 난 뒤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태음인은 '상쾌하다'와 '피곤하다'는 답이 같은 비율(41.7%)이었고 소양인은 '상쾌하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0.0%) 소음인은 '상쾌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21.5%). 다음으로 한열(寒熱)에 대한 문항에서는 비교적 체질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 '추위와 더위 중 어떤 것이 더 싫은지'를 묻는 문항에서 태음인은 '더위가 더 싫다'라고 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음인은 '추위가 더 싫다'라고 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다.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태음인은 '손이 따뜻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음인은 '손이 차다'고 답한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소양인은 중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56.2%). '발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묻는

Table 4.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

Items	Taeumin (n=36)	Soyangin (n=16)	Soeumin (n=65)	Average (n=117)	F (p)
What is your usual eating rate? ¹⁾ (fast ①/ slow ③)	1.75 ± 0.73	2.06 ± 0.68	2.00 ± 0.73	1.93 ± 0.73	1.686 (.190)
How is your usual taste? (too good ①/ bad ④)	2.06 ± 0.63 ^b	2.06 ± 0.57 ^b	2.54 ± 0.75 ^a	2.32 ± 0.73	6.923 (.001) ^{***}
Indigestion (frequently ①/ not ③)	2.61 ± 0.55	2.50 ± 0.73	2.37 ± 0.70	2.46 ± 0.66	1.586 (.209)
Vomiting (frequently ① / not ③)	2.89 ± 0.32	2.94 ± 0.25	2.95 ± 0.21	2.93 ± 0.25	0.763 (.469)
Food doesn't go down well (frequently ① / not ③)	2.64 ± 0.59	2.38 ± 0.72	2.42 ± 0.71	2.48 ± 0.68	1.491 (.229)
How much do you usually sweat? (a lot ①/ do not ④)	2.19 ± 0.86 ^b	2.63 ± 0.81 ^{ab}	2.82 ± 0.66 ^a	2.60 ± 0.79	8.072 (.001) ^{***}
How much do you usually sweat when it's hot? (a lot ①/ do not ④)	1.92 ± 0.81	2.25 ± 0.78	2.35 ± 0.82	2.21 ± 0.83	3.411 (.036) [*]
Time to sleep (hour) ²⁾	6.25 ± 1.27	6.78 ± 1.39	6.66 ± 1.22	6.55 ± 0.13	1.591 (.208)

* $p<0.05$, ** $p<0.01$, *** $p<0.001$

1) 1 point for fast eating, 3 points for slow eating

2) Time spent actually sleeping, not time spent in bed

Table 5.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I

Items		Taeumin (n=36)	Soyangin (n=16)	Soeumin (n=65)	Total (n=117)	$\chi^2(p)$
What is your usual daily meal size?	a lot	6(16.7) ¹⁾	1(6.3)	2(3.1)	9(7.7)	9.576 (.144)
	moderate	20(55.6)	9(56.3)	37(56.9)	66(56.4)	
	less	4(11.1)	4(25)	19(29.2)	27(23.1)	
	not consistent	6(16.7)	2(12.5)	7(10.8)	15(12.8)	
Do you have good digestion?	good	20(15.4)	8(50)	22(33.8)	50(42.7)	12.842 (.012)**
	not good and uncomfortable	9(25)	6(37.5)	12(18.5)	27(23.1)	
	not good but not uncomfortable	7(19.4)	2(12.5)	31(47.7)	40(34.2)	
How do you feel after sweating?	refreshing	15(41.7)	8(50)	14(21.5)	37(31.6)	11.430 (.022)**
	tired	15(41.7)	5(31.3)	23(35.4)	43(36.8)	
	no feeling	6(16.7)	3(18.8)	28(43.1)	37(31.6)	
How is your stool?	diarrhea	1(2.8)	1(6.3)	5(7.7)	7(6)	3.264 (.917)
	constipation	3(8.3)	1(6.3)	7(10.8)	11(9.4)	
	alternating diarrhea and constipation	2(5.6)	1(6.3)	1(1.5)	4(3.4)	
	food dependent	12(33.3)	4(25)	21(32.3)	37(31.6)	
	common	18(50)	9(56.3)	31(47.7)	58(49.6)	
What is the shape of your stool?	goat stool shape	0(0)	0(0)	3(4.6)	3(2.6)	13.783 (.315)
	hard, lumpy sausage shape	3(8.3)	0(0)	1(1.5)	4(3.4)	
	sausage shape with cracked surface	5(13.9)	2(12.5)	13(20)	20(17.1)	
	soft 'Galaetteog' shape	25(69.4)	14(87.5)	40(61.5)	79(67.5)	
	'Sujebi' shape	1(2.8)	0(0)	5(7.7)	6(5.1)	
	porridge shape	2(5.6)	0(0)	1(1.5)	3(2.6)	
	watery diarrhea	0(0)	0(0)	2(3.1)	2(1.7)	
Which do you dislike more, cold or hot?	cold	9(25)	5(31.3)	41(63.1)	55(47)	21.688 (.001)***
	hot	15(41.7)	3(18.8)	13(20)	31(26.5)	
	dislike all	8(22.2)	4(25)	9(13.8)	21(17.9)	
	all ok	4(11.1)	4(25)	2(3.1)	10(8.5)	
Are your hands cold or warm?	warm	19(52.8)	4(25)	9(13.8)	32(27.4)	32.252 (.000)**
	moderate	9(25)	9(56.3)	13(20)	31(26.5)	
	cold	7(19.4)	3(18.8)	40(61.5)	50(42.7)	
	not sure	1(2.8)	0(0)	3(4.6)	4(3.4)	
Are your feet cold or warm?	warm	11(30.6)	2(12.5)	5(7.7)	18(15.4)	25.944 (.000)***
	moderate	14(38.9)	3(18.8)	11(16.9)	28(23.9)	
	cold	8(22.2)	11(68.8)	47(72.3)	66(56.4)	
	not sure	3(8.3)	0(0)	2(3.1)	5(4.3)	
Is your abdomen cold or warm?	warm	5(13.9)	1(6.3)	39(60)	45(38.6)	7.346 (.290)
	moderate	16(44.4)	4(25)	23(35.4)	43(36.8)	
	cold	14(38.9)	9(56.3)	36(55.4)	59(50.4)	
	not sure	1(2.8)	2(12.5)	3(4.6)	6(5.1)	
How much water do you usually drink?	a lot	5(13.9)	1(6.3)	5(7.7)	11(9.4)	7.129 (.309)
	moderate	22(61.1)	6(37.5)	28(43.1)	56(47.9)	
	little	8(22.2)	8(50)	28(43.1)	44(37.6)	
	little by little often	1(2.8)	1(6.3)	4(6.2)	6(5.1)	
What is the temperature of your usual drinking water?	mostly warm water	13(36.1)	5(31.3)	36(55.4)	54(46.2)	5.615 (.230)
	mostly cold water	13(36.1)	5(31.3)	16(24.6)	34(29.1)	
	do not choose	10(27.8)	6(37.5)	13(20)	29(24.8)	

* p<0.05, ** p<0.01, *** p<0.001
1) n(%)

문항에서는 태음인은 중간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발이 따뜻하다’라고 답한 비율도 30.6%로 높은 편이었던 반면 소양인은 ‘발이 차다’는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고 소음인 역시 ‘발이 차다’는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위의 소증 결과를 정리하면 태음인은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되는 편이고, 땀을 많이 흘리며 더위를 싫어하며, 손과 발이 따뜻한 경향의 생리적 특성을 가졌으며, 소양인은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되는 편이고, 땀 분비는 태음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이고, 손은 태음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로 따뜻하나 발은 차가운 편이며, 소음인은 식욕과 소화에 있어서 가장 약하며, 땀을 잘 흘리지 않고, 추위를 가장 싫어하며 손과 발이 모두 차가운 경향의 생리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k 등[38]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침약 복용 후 경과 관찰을 통해 사상체질이 진단된 588명을 대상으로 체질별 소화 특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소화가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과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문항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소화가 잘되고 과식하기 쉬우나 그 경향은 태음인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소화가 안 되어 어릴 때부터 항상 고생했다’라는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이나 태음인보다 소화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 역시 태음인과 소음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사상체질 민간전문가에 의한 설문결과를 머신 러닝 기법에 의해 분석한 연구[37]의 47개 문항 중 ‘하루 종일 많이 먹는다’, ‘보통 하루에 소량의 음식을 먹는다’, ‘식욕이 적다’ 등의 평상시 식욕 및 음식 섭취량을 묻는 3개의 문항 결과는 모두 태음인이 가장 크고 소음인이 가장 적었으나 그 태음인과 소양인의 차이는 소음인과의 차이에 비해 크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SCAT 소증 설문 문항 중 소화 기능과 관련한 다른 문항인 소화불량, 구토,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음, 식사량, 대변의 상태와 형태 등에 대해서는 체질 간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평상시 입맛 외에 체질 간 특성을 나타낸 ‘평상시 흘리는 땀’의 정도를 보면 Table 4에서 태음인은 평소 흘리는 땀의 양이 소음인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와 관련하여 Table 5의 교차 분석 문항 중 ‘땀을 흘린 후의 기분’을 묻는 22번 문항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땀을 흘린 후의 기분이

더 상쾌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태음 41.7%, 소양 50.0%), 소음인의 경우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비율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22$). Kim 등[37]의 결과에서 체질 간의 특성을 보여주는 47개 문항 중 땀 분비와 관련된 문항은 총 7개로 ‘평소에 땀을 덜 흘린다’, ‘땀을 흘린다’,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다’, ‘보통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린다’,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6개 문항은 모두 태음인이 가장 땀을 많이 흘리고, 소음인이 가장 덜 흘리며 소양인은 그 사이에 있지만, 태음인과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땀이 좋지 않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다’라는 문항만은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태음인의 땀 분비가 원활한 것을 건강의 조건으로 보고 땀이 나는 부위와 진퇴를 관찰함으로써 병의 유무와 예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태음인은 평소 땀이 많고, 땀을 흘려야 상쾌해진다고 하였다[39].

반면, Kim 등[37]의 연구 결과에서 47개 문항 중 추위와 더위의 기호에 관한 문항은 없었으며 손의 한열과 관련된 2개의 문항 즉, ‘내손은 따뜻하다’, ‘손이 차갑다’의 2개 문항은 태음인의 손이 가장 따뜻하고, 소음인이 가장 차가웠으며 소양인은 그 중간이었고, ‘손발이 차갑다’라는 문항 역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또한 ‘발이 따뜻하다’라는 문항에서는 태음인이 가장 따뜻하며 소양인의 발이 가장 차갑다고 하여 본 연구와 매우 일치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배가 따뜻하지 차가운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Kim 등[37]의 연구에서는 ‘속(위)이 차갑다’라는 문항 역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보통 찬물을 마신다’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도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순서였다.

한열(寒熱)은 한의학의 진단기준인 팔강(八綱)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현상적으로는 열이 나는 것과 비슷하나 환자의 체온뿐만 아니라 주관적 열감과 한기, 환자가 실생활에서 선호하는 마시는 물의 온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체질 간 차이를 보이는 개념으로 소음인은 한(寒)이 우세하나 소양인은 열(熱)이 우세한 것으로 서술된다[40]. 한편, Kim & Jeon[41]은 월경통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열허실 팔강진단과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소음인은 한변증 그룹과, 태음인은 열변증 그룹과의 연관성을 보였다고 하여 기존의 한의학계의 연구결과 및 SCAT와 사상체질 민간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체질 집단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 그리고 사상체질 민간전문가에 의해서만 판정된 체질 집단의 연구 결과[37] 모두 식욕 및 소화, 땀 분비 관련, 한열 관련 결과에 있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회연구원이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한 SCAT(ver. 2.0)와 함께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의 사상체질전문가가 대상자의 사상체질을 판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가 일치한 117명(태음인 36명, 소양인 16명, 소음인 65명)을 대상으로 SCAT 설문지 중 12문항의 성격 문항과 20개의 소증 문항을 분석한 것이다.

체질별 성격특성은 태음인은 대범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남성적이나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꼼꼼하며, 소양인은 대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특성은 태음인과 유사하나 속을 잘 드러내고 털렁대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소음인은 섬세한 성격과 함께 매사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여성적인 특성을 가졌으며 태음인과 마찬가지로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꼼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별 소증 특성은 태음인은 식욕이 좋으며, 소화기 잘 되는 편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싫어하며, 손과 발이 따뜻한 경향을 보인다. 소양인은 식욕이 좋으며, 소화가 잘되는 편이고, 땀 분비는 태음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이며, 손은 태음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로 따뜻하나 발은 차가운 편이었다. 반면 소음인은 식욕과 소화에 있어서 가장 약하며, 땀을 잘 흘리지 않고, 추위를 가장 싫어하며 손과 발이 모두 차가운 생리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CAT의 설문 문항은 한의학 관점에서 각 체질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격을 묻는 12개 문항 중 6개, 소증 증 연속형 변수로 처리할 수 있는 8개 문항 중에서는 2개만이 체질별 유의적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소증 증 범주형 문항 11개 중 5개 문항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문항의 체질별 특성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 사상체질연구자들에 의한 설문 연구[37]와도 일치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들 연구 모두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성격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이 더 유사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후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의

특성을 특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의 개발은 사상체질 판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해 사상체질을 진단받지 않고도 또는 SCAT를 이용하기 위해 안면 촬영, 음성녹음, 체형 측정 등을 위한 환경을 갖추지 않고도 체질을 판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상체질 산업이 또 다른 K-문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M. Lee, DongUiSuSeBoWon, p.479, Changhae, 2008, pp.444-454.
- [2] J. W. Kim, Y. K. Sul, J. J. Choi, S. D. Kwon, K. K. Kim, Y. T. Lee, "Comparative Study of Diagnostic Accuracy Rate by Sasang Constitutions on Measurement Method of Body Shap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Vol.21, No.1, pp.338-346, Feb. 2007.
- [3] C. H. Lee, "Harmonization of Eastern and Western Health Knowledge: Nutrigenetics and Sasang Typology", *Foo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Vol.13, No.2, pp.89-95, May 2007. DOI: <https://doi.org/10.3136/fstr.13.89>
- [4] I. G. Kim, Y. H. Lim, "A Study on the Dynamic Web Design Based on MBTI: Focusing on Users in Their 20s", *Animation Research*, Vol.18, No.4, pp.70-89, Dec. 2022. DOI: <https://doi.org/10.51467/ASKO.2022.12.18.4.70>
- [5] G. L. Lee, S. A. Yun, "Buddhist Medicine and Ayurveda", *Bulgyohagbo*, Vol.101, pp.9-35, Mar. 2023. DOI: <http://dx.doi.org/10.18587/bh.2023.3.101.9>
- [6] Wikipedia. Aveda[Internet].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3 [cited 2023 July 10]. Available From: <https://en.wikipedia.org/> (accessed July 24, 2023)
- [7] J. W. Kim, K. K. Kim, E. J. Lee, Y. T. Lee, "Study on the Body Shape and Feature of Four Constitutional Types Based on Physical Measurements 1",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Vol.20, No.1, pp.268-272, Feb. 2006.
- [8] J. H. Do, E. S. Jang, B. C. Ku, J. S. Jang, H. G. Kim, J. Y. Kim,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method using face, body shape, voice, and questionnaire information", *BMC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Vol.12, No.1, pp.85-93, Feb. 2012. DOI: <http://dx.doi.org/10.1186/1472-6882-12-85>
- [9] J. S. Cheon, D. K. Yim, S. M. Kim, "Analysis of BMI and Food Preference by Sasang Constitutional

- Typology Classified by SCAT2 and a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33, No.2, pp.186-198, Apr. 2018.
DOI: <https://doi.org/10.7318/KJFC/2018.33.2.186>
- [10] D. S. Hwang, J. H. Cho, C. H. Lee, J. B. Jang, K. S. Lee, “A Study on Reproducibility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 *Journal of Korean Medicine*, Vol.27, No.3, pp.145-150, Sep. 2006.
- [11] K. H. Bae, S. H. Kim, H. Y. Go, K. H. Park, S. Lee, S. Lee, “One Year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orea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Questionnaire (KS-15)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31, No.2, pp.12-21, Jun. 2019.
DOI: <http://dx.doi.org/10.7730/JSCM.2019.31.2.12>
- [12] J. Lee, M. H. Yim, J. Y. Kim,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SCAT)”,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Vol.7, No.2, pp.136-140, Jun. 2018.
DOI: <https://doi.org/10.1016/j.imr.2018.02.001>
- [13] E. K. Han, Y. K. Kwon, “Inter-expert Agreement and Diagnostic Accuracy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Vol.32, No.4, pp.185-196, Aug. 2018.
DOI: <http://dx.doi.org/10.15188/kiopp.2018.08.32.4.185>
- [14] M. S. Kim, Y. Hwang, S. J. Park, J. Lee, J. Kim, S. J. Lee, H. Chae, “Systematic Review on the Use of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32, No.3, pp.167-184, Sep. 2021.
DOI: <https://doi.org/10.7231/JON.2021.32.3.167>
- [15] H. Choi, S. M. Kim, “BMI Characteristics and Food Preference of Taeumin and Soeumi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33, No.6, pp.512-522, Dec. 2018.
DOI: <https://doi.org/10.7318/KJFC/2018.33.6.512>
- [16] J. Y. Kim, “Oriental Medicine as a Heterogeneous Ensembl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Vol.10, No.2, pp.103-123, Dec. 2001.
- [17] J. Yoo, E. Lee, C. Kim, J. Lee, L. Lixi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 Comparative Over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Vol.2012, 980807, Sep. 2011.
DOI: <https://doi.org/10.1155/2012/980807>
- [18] H. C. Choi, “An Application of Sasangchejil (A Theory of Four Different Types of Persons) to the Study of Patterns of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47, No.1, pp.170-203, Feb. 2010.
DOI: <https://doi.org/10.22174/jcr.2010.47.1.170>
- [19] W. Y. Lim, S. R. Kim, “Sasang Physical Constitution Usability for Character Development -Based on Studio Pixar’s Character-”, *Journal of Digital Design*, Vol.11, No.1, pp.335-344, Jan. 2011.
DOI: <https://doi.org/10.17280/jdd.2011.11.1.032>
- [20] W. Y. Lim, S. R. Kim, “A Case Studying and Developing of the Tool Based on Sasang Physical Constitution for Analysis of Character -Mainly with Analysis on the Main Character in the Animation ‘Toy Story’-”, *Journal of Digital Design*, Vol.12, No.1, pp.177-186, Jan. 2012.
DOI: <https://doi.org/10.17280/jdd.2012.12.1.018>
- [21] Y. W. Shao, H. Y. Kim, “A Study on the Character’s Appearance and Personality in Chinese Animation by Sasang Constitution and Jungian Psychology-Focused on Animation of Chinese Mythology-”,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41, No.2, pp.143-156, Mar. 2023.
DOI: <http://dx.doi.org/10.17548/ksaf.2023.03.30.143>
- [22] J. E. Cho, H. S. Lee, “The tactile preferences of mobile phone surface material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Vol.11, No.3, pp.485-500, Jun. 2010.
- [23] H. S. Seo, “Material and Finishing Preference Trend in Smart Band According to Sasang Physical Co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8, No.1, pp.199-211, Mar. 2022.
DOI: <http://dx.doi.org/10.18208/ksdc.2022.28.1.199>
- [24] M. K. Lee, Y. J. Kim, B. H. Noh, Y. M. Park, “Converged Research on the Difference of Learning Sty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Major and Brain Domin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1, pp.145-153, Feb. 2016.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6.7.1.145>
- [25] Y. G. Park, B. H. Lim,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and Sasang constitution-Focusing on the key virtues of personality-”, *Confucianism Research*, Vol.61, No.1, pp.267-289, Nov. 2022.
DOI: <http://dx.doi.org/10.18216/yuhak.2022.61..010>
- [26] Y. J. Park, O. I. J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Clothing Val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Costume*, Vol.27, pp.87-101, Feb. 1996.
- [27] J. S. Lee, “Classification of Healing Hair-styles Image Using Yin-Yang,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20, No.4, pp.253-270, Dec. 2019.
DOI: <http://doi.org/10.18693/iksba.2019.20.4.253>
- [28] J. S. Lee, J. S. Park, J. H. Lee, H. J. Choi, “A Study of Healing Design Development of by Sasang-Constitution Using Color 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17, No.2, pp.147-158, May 2016.
DOI: <http://dx.doi.org/10.18693/iksba.2016.17.2.147>
- [29] S. H. Heo, S. Yoo, “Relations Between Aroma Essential Oil Blending Based on Oil Characteristics and In-San Body Constitution Based on Blood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2, No.6, pp.1236-1244, Dec. 2016.
- [30] E. K. Oh, S. H. Jeong, “A Study of Oriental Medicineon Skin Care by Constitution to Cosmetolog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eauty Cultural Arts*, Vol.5, No.1, pp.3-12, Jun. 2016.

- [31] Y. Y. Kim, J. H. Kwon, S. W. Lee, J. H. Yoo, “Trends in Nursing Research using Sasang Constitutional Theor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1, pp.40-46, Jun. 2012.
- [32] K. H. Sung, G. H. Ryu, D. Y. Yun,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and Wine Recommendation App Suggestion through Mobile Face Recogni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13, No.3, pp.155-162, Aug. 2021. DOI: <http://dx.doi.org/10.7236/IJIBC.2021.13.3.155>
- [33] H. S. Jo, “Sasang Constitution and Genetic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10, No.1, pp.13-24, Aug. 1998.
- [34] Y. H. Li, J. Y. Kim, B. H. Koh,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Sojeung' in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28, No.1, pp.19-26, Mar. 2016. DOI: <https://doi.org/10.7730/JSCM.2016.28.1.19>
- [35] I. B. Song, “A Study on the Symptomatic- pharmacology Sasang Constitution”,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10, No.2, pp.1-14, Dec. 1998.
- [36]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New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p.1376, Yeogang, 2003, pp.587-590, 1173-1175.
- [37] S. M. Kim, J. Ryu, E. O. Park,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Identify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9, No.18, pp.11820, Sep. 2022. DOI: <https://doi.org/10.3390/ijerph191811820>
- [38] T. H. Baek, J. R. Choi, S. S. Park,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16, No.1, pp.112-119, Apr. 2004.
- [39] Y. Y. Kim, H. S. Kim, Y. H. Baek, J. H. Yoo, S. H. Kim, E. S. Jang, “A Study on the Constitution Type-specific Presentation of Physical Symptom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23, No.3, pp.340-350, Sep. 2011.
- [40] H. J. Jin, S. H. Kim, S. O. Dong, E. S. Jang, S. W. Lee, “The Agreement in Cold-heat and Health Status among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in Diagnosis of Sasang Pat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26, No.2, pp.146-155, Jun. 2014. DOI: <https://doi.org/10.7730/JSCM.2014.26.2>
- [41] J. O. Kim, S. H. Je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ight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of Cold-Heat, Deficiency-Excess and the Sasang Constitution -500 Women with Menstrual Pain and Women without Menstrual Pain as a Target-”,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32, No.3, pp.18-32, Sep. 2020. DOI: <https://doi.org/10.7730/JSCM.2020.32.3.18>

김 순 미(Soon Mi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 1990년 9월 :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농예화학과 (농학박사)
- 1991년 7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관심분야>

식품영양, 식생활과 사상체질, 발효식품의 건강기능성